

대세 이끈다



없어 못파는 '포터'

경기 집세가 계속되면서 생계형 소형 상용 차량의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서민의 발'로 불리는 현대차의 1t 트럭 포터는 올해 들어 최대 판매 차종 자리를 지키면서 연간 베스트셀러가 자리를 넘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포터는 올 1~4월 총 3만4305대가 팔려 현재까지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포터는 2월에만 3위로 밀려났을 뿐 1월과 3, 4월에는 월간 선두를 차지했다. 올 들어 매달 평균 8500대 이상 팔린 셈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상용차 가운데 처음으로 연간 10만대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출시된 지 38년이나 지난 포터는 주로 길거리에서 채소, 과일을 팔거나 푸드트럭, 이삿짐 운반, 택배 등에 이용된다. 따라서 경기가 나쁠 때 퇴직자들이 늘어나면 포터를 사서 창업하는 사례가 많다.

현대차, 1~4월 3만4300대 팔아 올 판매 1위 월 평균 8500대...상용차 첫 10만대 매출 예상

현대 포터와 선두다툼을 벌이는 모델은 현대차의 쏘나타다. 쏘나타는 지난해 10만8000대가 팔리며 최대 판매 차량에 오른 바 있다. 올 들어서도 4월까지 3만1215대가 팔리며 포터와 3000여 대 차이로 2위를 달리고 있지만 지난해 신형 투싼 돌풍의 영향으로 월간 판매 3위로 밀려나는 등 뒷심이 달리는 모양새다. 특히 하반기에 기아차 K5 신형 모델이 나올 경우 쏘나타의 판매량은 더욱 줄 것으로 보여 2년 연속 베스트셀러가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아차의 봉고트럭도 올해 1만9739대가 팔리며 최대 판매 차종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GM의 경승용차 다마스과 라보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다마스는 722대, 라보는 597대가 각각 팔려 두 차종의 4월 내수판매는 올해 들어 월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4월 누적으로는 다마스가 2253대, 라보는 2112대가 팔렸다. 올해 누적 판매 순위를 보면 포터와 쏘나타에 이어 3~5위는 모닝(2만8661대)과 그랜저(2만7830대), 아반떼(2만6088대)가 차지했다. 쏘렌토(2만5146대)와 싼타페(2만3075대), 카니발(2만264대)은 6~8위에 올랐고 투싼은 봉고트럭(9위)에 이어 10위를 기록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뒤늦은 인기 '모하비'

기아차, 월평균 1000대 판매 전년 동기보다 13% ↑ 2008년형 차 감가율 40%...중고가 높은 것도 매력

기아자동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하비가 2008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월평균 판매량 1000대를 넘어서며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SUV 열풍이 부는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뒤늦게 판매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최근 기아차에 따르면 모하비는 지난 4월 한 달간 1158대가 팔려 지난해 4월보다 13.2% 증가했다. 이는 출시 첫 달인 2008년 1월 1274대와 같은 해 3월 1159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월간 판매대수다. 올해 1~4월 누적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한 4165대로 집계

됐다. 올해 들어 한 달 평균 1041대가 팔린 셈으로, 모하비의 월평균 판매대수가 1000대를 넘어서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모하비는 출시 첫해에는 8899대가 팔렸으나 이듬해인 2009년 6428대, 2010년에는 5651대까지 줄었다. 그러다 2011년부터 반등해 지난해에는 1만581대까지 늘었다. 월평균 판매대수도 2008년 742대에서 2010년에는 471대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882대로 회복됐다. 모하비는 그동안 연식변경만 있었을 뿐 단 한 차례 완전변경 모델이 없었다. 1세대 모델이 출시 첫해보다 더 잘 팔리는 경우는 업계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모하비가 다시 인기를 끄는 이유는 최근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프레임 방식 차체의 견고한 대형 SUV라는 점이 꼽힌다.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SUV가 전륜구동에다 차체 각 부분을 모듈 방식으로 조립하는 '모노코크 타입'인데 반해 모하비는 후륜구동에 프레임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 때문에 도심 주행만을 주로 하는 소비자들은 다소 무겁다고 느끼지만 트와외에서는 탁월한 안정성을 보인다. 모하비는 중고차 가격이 잘 내려가지 않는 차로도 유명하다. 2008년 초기형 차량도 감가율이 40% 이내로 불과하고, 2014년형의 경우 거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현대·기아차는 경쟁모델인 배라크루즈는 단종시킬 예정이지만 모하비는 유로6를 충족하는 엔진을 달아 계속 판매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

수입차 시장 위축 전달보다 등록 18% 줄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4월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가 1만8202대로 집계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해 4월(1만6712대)보다는 8.9% 증가했지만, 월간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던 3월의 2만2280대보다는 18.3%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신규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월 17.6%에서 4월 14.1%로 낮아져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1~4월 누적 등록 대수는 7만717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2% 늘었다. 특히 아우디가 '뉴 아우디 A6'와 '뉴 아우디 Q3' 등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재고물량을 떨어내면서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우디는 연초부터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펼치며 3월에는 판매량을 3895대까지 늘렸으나 지난해에는 1010대를 파는데 그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세차 직후 물기 잘 닦아야 얼룩 예방

Q) 세차 후 얼룩 발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세차 시 사용하는 수도물이나 지하수 안에는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차 후 태양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면 함유 성분만 남아 차량 건조 후 강하게 표면에 부착하여 얼룩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차를 할 경우 물기를 제거할 때까지 직사광선을 막아주도록 해야하며 세차 후 수평부위부터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 세차 후 세척제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아차 광주서비스 센터 제공>

'에쿠스' 자존심 회복선언 연말 신형 출시

국내 최고급 대형세단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현대차 에쿠스가 고급 수입차의 공세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현대차는 연말에 신형 에쿠스를 출시, 손상된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플래그십(flag-ship : 기함) 세단인 에쿠스는 2009년 3월 출시된 이후 2011년까지 매년 1만대 이상 팔렸다. 2012년 9308대로 주춤하긴 했지만, 그해 11월에 부분 변경된 에쿠스가 나오자 2013년에 예년 수준인 1만2725대로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판매실적은 8487대로 다시 주저앉았고, 올해 들어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에쿠스의 1~4월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1% 감소한 2608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들이 에쿠스가 지배하던 최고급 차량 부문을 잠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익형 고층 아파트 특별분양 (한정 세대)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아파트 명가 호반건설) 특별분양가 총 5,350 만원 1. 풀옵션 올리모델링 42㎡, 전용비율 70% 이상 2. 수익율 15~16% (전국 최고 수익율, 관리비 저렴) 3. 나주혁신도시 근거리 위치 / 동신대 정문 앞 4. 미래가치 최고, 신세계 전남, 광주 프리미엄 아울렛 예정지 입구 5. 오피스텔의 반값 / 2배의 가치와 만족도 6. 선착순 동호수 지정, 19세대 한정 Tip 전세 3,900만 ~ 4,200만 월세 가능, 486세대(대단지), 주차 완비 스타공인중개사 (대표: 정재호) 010-3419-910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외벽, 내벽, 화장실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덕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